

명예심

— 이름과 사람의 가치 —

* 韓國精神文化研究院 제공 *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다. 호랑이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란 별로 없다. 그러나 그의 가죽만은 쓸만한 것이다. 호랑이의 가죽이 인간에게 쓸모가 있고 없고 간에, 비록 죽은 후에도 남겨진 그의 가죽은 그가 살았을 때의 위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숲속의 왕이라고 불리는 호랑이가 남긴 가죽은 그의 사나운 모습과 위용을 떨치던 몸집과 온 산골짜기를 진동시키던 우렁찬 소리를 생각하게 해 준다. 죽은 호랑이의 가죽만으로도 그의 위엄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

사람은 죽어서 땅에 묻혀야 하고 그리고는 남는 것이란 이름밖에 없다. 이 이름만으로도 죽기 전의 그의 모습과 성품과 업적을 생각해 하기에 충분하다. 사람들은 그를 이름과 더불어 생각하고 이름을 부르면서 기억하며 비난하거나 칭찬하거나 하게 된다.

사람의 이름은 호랑이의 가죽과 같이 그의 특징과 생활을 모두 남긴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긴다. 좋은 이름을 짓고자 하고, 좋은 일에 자기 이름이 오르내리기를 바라고, 좋은 기억과 더불어 연상해주시기를 누구나 기대한다.

사람들은 부르기에 좋고 쓰기에 좋은 이름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름 그 자체가 인간의 성품과 운명을 결정한다고 믿기도 한다. 그

래서 좋은 이름을 짓기 위하여 이름 잘 짓는 유명한 작명가를 찾아 가고,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생활이 어려우면 이름의 탓으로 생각하여 개명하는 사람도 있다.

사람들은 이름을 빛내는 일을 최고의 영예로 여기며 이름이 더럽혀지는 일을 가장 치욕으로 느낀다. 그래서 이름을 아낀다는 것은 결국 자기를 아낀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이름이 곧 자기 자신이며, 자신의 인격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이름은 단순히 몸뚱이만이 아니라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의 삶 전체를 뜻한다. 우리가 고인이 된 사람이나 옛 사람의 이름을 들어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육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과 생활과 정신의 모두를 연상한다.

나의 이름이 우등생의 줄에 적혀 있으면 자랑스럽고 열등생의 줄에 보이면 수치스럽다. 나를 알아 준다는 것은 내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을 뜻하고 내가 알려진다는 것은 내 이름이 못 사람들의 기억 속에 담기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는 자신의 이름이 좋은 일로 신문이나 방송에서 나오면 얼마나 기뻐하고 자랑스러워 하는가? 그러나 나쁜 일로 나오면 그처럼 부끄럽고 민망스러울 수가 또 있겠는가?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자기의 이름을 화려하게 장식하기 위하여 자신의 업적이 아닌 것도 자기의 이름으로 나타내고자 하고, 자신의 업

적을 선전하고자 하며, 조그마한 것도 과장해서 나타내고자 하기도 한다. 말하자면, 공명심이 그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이름은 「김 아무개」, 「이 아무개」하는 개인의 고유 명사로 표현되는 것만 아 아니다. 어느 집 자녀, 어느 성씨, 어느 고장 사람, 어느 학교 출신, 어느 직장 직원, 어느 직업을 가진 사람, 어느 나라 국민 등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고유 명사 이외에 수많은 이름들을 가지고 산다. 이런 이름들은 한 개인의 이름은 아니지만 이 이름으로 불리는 단체나 집단의 특징을 전체적으로 나타내어 준다. 자기가 속한 고장의 사람이나 풍물을 칭찬하면 즐겁고 욕하면 불쾌하다. 이런 이름들도 나의 고유명사와 마찬가지로 좋은 일로 불리면 내가 자랑스럽고 나쁜 일로 오르내리면 수치스럽다.

어느 경찰관이 독직을 범했을 때, 어느 교사가 도덕적으로 몰지각한 행동을 했을 때, 어느 정치인이 파렴치한 짓을 했을 때, 같은 경찰들, 같은 정치인들은 밖으로는 모두 마치 자기가 저지른 것처럼 부끄러워 하고 안으로는 그를 한없이 원망하고 분개해 마지 않는다. 「어물전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는 말이 바로 이런 일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는 자신의 이름을 더럽혔다고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뿐만이 아니다. 사람의 이름 중에는 성인, 위인, 대가, 지사, 용사, 애국자, 공로자 등과 같이 어떤 행적을 찬양할 만한 사람에게 붙여지는 것도 있고, 살인자, 강도, 도둑, 사기꾼, 비겁자, 배신자, 매국노 등과 같이 인간 사회로부터 비난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붙여지는 이름도 있다. 영광스런 이름이 붙여지면 황공스러우면서도 흐뭇하고, 불미스러운 이름이 붙여지면 불쾌할 뿐만 아니라 치욕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그래서 누구나 오명(汚名)을 씻으려 하고 누명(陋名)을 벗고자 한다.

내가 어느 직업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종교를 택하는 것은 나의 이름을 택하는 일과도 다를 바가 없다. 스스로 택할 수 있는 이름도 있

지만, 때로는 성실하고 진지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주위로부터 불려지는 이름도 있다. 이를테면 우등생, 인격자, 자선가, 모범 사원, 영도자와 같은 이름이 그러하다. 그런가 하면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붙여지는 이름도 있다. 배신자, 비겁자, 사기꾼은 반드시 상습적인 경우가 아닐 경우에도 억울하게 붙여진다. 또한 행운아, 낙오자, 실패자 등은 노력과는 상관없이 또는 노력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불려지는 이름이다.

이름, 그것은 어떻게 붙여진 것이든 간에 나의 모두를 나타내어 준다. 인간의 겸손은 자신에게 과분한 이름이 주어졌을 때 생기고, 오만과 교만은 걸맞지 않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그 이름을 내세울 때의 태도를 일컫는 말이다. 명예는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당당하게 나타내는 태도이다.

우리가 무명 용사를 애석하게 여기는 것은 그의 업적에 상응하는 이름을 부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가지는 마음이다. 당당한 이름은 내가 사랑하거나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바치는 가장 귀한 선물일 수도 있다.

우리가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도 위인이나 성인의 말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공자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석가모니께서 가르치시기를』, 『소크라테스에 의하면』 등과 같이 위인의 이름을 드는 것은 그 이름이 지혜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어느 학자나 어느 대가의 말로 나타내는 것은 그 이름이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느 진실한 사람을 언급하는 것은 그 이름이 신뢰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이름은 지혜도, 권위도, 신뢰도 의미할 수 있다.

이름의 이러한 특징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유명한 상표, 유명한 회사, 유명한 신문, 유명한 음식점은 그 이름이 권위나 능력이나 신뢰를 상징한다. 그러므로 이름이란 그저 부르기에 편리한 것만이 아니라 한 인간의 모든 것을 상징하는 소중한 것임에 틀림이 없다.*